

# 중국 PCB 전시회를 다녀와서



본회 PCB협의회 회장 신 영 조

**제** 10회 중국 전자회로산업전시회(CPCA Show 2001)가 중국상하이 인텍스 전시장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개최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250여 업체가 PCB 생산 및 검사장비, 원부자재 등이 대거 출품되었다.

중국의 PCB산업은 이미 한국을 앞질러 세계 4위 국가로서 세계시장 총 수요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36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근 매년 28% 이상씩 성장하는 것은 중국인구가 15억명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도 전자제품의 보급률이 낮아 자체 수요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낮은 인건비로 인해 중저가제품(양단면에 저가 4층기판)의 생산원가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중국 : 생산직여사원 월 500\$, 한국 : 생산직여사원 월 1500\$) 이는 물론 단순비교 인건비

이지만 공장설립, 인건비 등의 비교수위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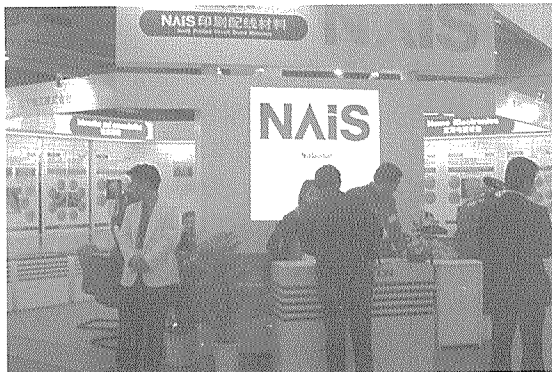
지금까지 중국의 PCB산업을 보면 80년대에 TV, 냉장고 등 가전 등에서 90년도 컴퓨터, 통신시스템 용에서 2000년대에는 고다층, BGA 등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2003년경에는 장비 및 원자재 산업도 자체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전자회로협회(CPCA) 왕룡기 비서장의 말이다.

중국의 PCB산업은 2003년경에는 세계 PCB생산액 500억\$의 10%에 해당하는 50억\$규모로서 일본, 미국 다음에 대만을 제치고 세계 3위 국가에 도약한다는 것이다.

또한 왕비서장은 중국은 PCB산업의 제일 큰 과제는 생산장비 및 원부자재 산업이 미미해 한국업체의 진출을 적극 권하고 있으며 상해에서 1시간거리 이내의 지역에 공장건설을 한다면 20일 이내의 공장허가 등 중국정부와 협력해 우리나라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컴팩사를 비롯 상위 10개사는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컴퓨터시장의 경기하락으로 수요가 급감한데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휴대폰 시장으로 급부상한데다 상해 포동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속속 건설되면서 빌드업 기판과 패키지 기판인 BGA기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코리아씨킷 등 3개 업체



가 진출해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국내 인건비 상승과 PCB수요저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 진출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삼성전기, LG전자, 페타시스 등은 중국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두산과 코스모텍의 경우 투자를 확정짓고 공장물색에 들어갔다.

중국은 다른산업도 같은맥락이겠지만 15억 인구의 자체수요가 있으며 또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공장건설의 비용절감 등의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PCB협회가 자체적으로 부스를 임차하여 자국 PCB 산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전자회로대회(WECC)가 동시에 개최하고 있으나 한국은 금년 4월에 PCB협의회가 구성되어 세계 각국의 PCB산업의 정보, 환경 등의 정보입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 PCB산업은 PCB산업, 장비산업, 원부자재 산업 업체들이 서로 협심하여 정보교환, 신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PCB산업의 전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원부자재, 장비산업 등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PCB업체의 해외 진출에 있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이번 중국전시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느낀 것은 기술수준이 비록 우리나라에 비해 6~7년 정도 뒤져있지만 생산금액으로는 한국을 앞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전자회로사업은 모든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움직이는 물체는 사람빼고 전자회로가 적용되고 있다.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선박·기계·항공기 등 모든산업의 회로 즉 사람으로 말하면 중추신경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도 우리나라 전자회로 산업육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관련업체들도 한국전자회로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산업으로 세계 선도산업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표 1> 중국의 PCB 수출입현황

(단위 : 만\$)

구분	'96	'97	'98	'99	2000	연평균 성장률(%)
수출	50,511	73,379	94,975	102,917	141,426	27.8
수입	43,947	57,067	86,191	108,572	163,676	32.7

<표 2> 중국의 PCB 분포도

